



“경북 칠곡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파문

# 공군기지 있는 광주는 안전한가

최근 경북 칠곡의 미군 기지에서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전직 미군의 증언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24일엔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외에 경기도 부천 오정동에 있었던 캠프 머서에도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는 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동 미군기지 캠프 머서에서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캠프 머서에서 근무했다는 레이 바우스씨는 지난 2004년 5월 미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캠프 머서에서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까지 근무했던 레이 바우스씨는 근무 당시 불도저를 통해 구덩이를 파고 고무옷과 가스 마스크 및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등 수백 갤런(1갤런은 약 3.8ℓ)을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캠프 머서에서 주한미군 화학물질 저장소(USACDK)가 있었으나, 1964년 3~4월께 왜관의 캠프 캐럴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USACDK의 이전 이유로 화학물질 저장소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있는 KPHO-TV는 경북 칠곡군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근무한 적이 있는 주한미군 3명의 증언내용을 방송했다.

캠프 캐럴에서 중장비 기사로 복무했던 스티브 하우스는 인터뷰에서 “1978년 어느 날 도시 한 블록 규모의 땅을 파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매장 물체는 밝은 노란색이거나 밝은 오렌지색 글씨가 써진 55갤런짜리 드럼통들이었으며, 일부 드럼통에 ‘베트남 지역 캠프 오렌지(고엽제)’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우스는 묘사했다.

또 당시 하우스 씨와 같이 복무했던 로버트 트라비스씨도 참고에 250개의 드럼통이 있었으며 이 드럼통을 일일이 손으로 밀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퇴직 미군들의 증언이 속속 드러나자 지난 23일 주한미군은 경북 칠곡군 왜관을 미군기지 ‘캠프 캐럴’ 안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3시간 가량 기지 내 브리핑과 현장 공개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다.

미군 측 데이비드 폭스 미8군 기지관리사령관(준장)은 1978~1980년 오염물질을 기



지난 23일 경북 칠곡군 왜관을 캠프 캐럴 기지에서 민간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고엽제가 매립지로 추정되는 헬기장 인근을 둘러보며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내에 매립했다가 다시 기지 밖으로 반출했으나 반출 목록에는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2년 미 육군 공병대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주장을 한 퇴역 미군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군과도 공동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고엽제 파문이 확산되자 광주 지역 시민들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에 사는 김모(35)씨는 “광주에도 공군기지가 있는 만큼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당시 오염물질 반출이 언제 어떻게 반출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광주 지역은 고엽제 피해가 없는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박모(42·서구 화정동)씨도 “이번에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같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고엽제는 실질적으로 토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떨어져 있다보니 아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계속 증언이 확대되고 있고, 화학물질이 광주·전남 지역으로 반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경북지역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은 부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직접적 영향 없지만 반입 가능성 ‘예의주시’

## “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 고엽제 매립 사건 일지

16일	미국 KPHO-TV 방송 스티브 하우스씨, 경북 칠곡 캠프 캐럴에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 매립했다고 주장
19일	환경부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환경보좌위원회에서 미군 측에 사실 확인 촉구
20일	환경부 캠프 캐럴 주변 답사와 전문가 회의 캠프캐럴 퇴직자 ‘헬기장 매몰지 유력’ 증언
22일	한·미 고엽제 매몰 공동 조사 합의
23일	미8군 1978년 제조제 등 매몰 기록 발견했다고 발표 한·미 공동조사 착수, 고엽제 확인이 안됨 환경단체들 캠프 캐럴 부대 정문 앞 1인시위 돌입
24일	전직 미군 레이 바우스씨, 경기 부천 캠프 머서에도 화학물질 매립 주장 공개

### ■ 고엽제란? 그리고 인체 영향은?

고엽제(枯葉劑)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하는 제초제다. 고엽제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면 5~10년 후에는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한다. 0.15g만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용사 3만 3062명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광주 지역에서는 4500여명에 이른다.

만일 고엽제가 땅속으로 유출될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토양을 오염시킨 뒤 농작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등 먹이사슬을 거쳐 사람 몸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광주·전남 화학물질 관리 ‘우수’

영산강환경유역청, 9년간 사업장 211곳 조사

취급량 전국 35.3%... 대기배출량 9.1% 수준

광주·전남 환경산업체의 화학물질 관리역량이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안연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광주·전남 환경산업체의 화학물질 취급량 대비 배출량이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역 사업장 211곳에서 9년간 화학물질 취급량은 3억6036만5000톤으로 전국 10억2159만4000톤의 35.3%로 높은 반면, 대기 등으로 배출된 화학물질 배출총량은 3만6125톤으로 전국 배출총량 39만7266톤의 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급량 대비 배출량(배출율)으로 보면 0.010%로 전국 평균 0.039%에 비해 낮으며, 2001년 0.021%에서 2009년 0.008%로 계속 감소 추세다.

또 지역에 배출되는 화학물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자일렌으로, 전체 배출량의 52%를 차지했다. 자일렌은 조선(선박)업종의 도장시설 등에서 주로 용매제나 희석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자일렌 외에 에틸벤젠, 톨루엔, 에틸렌, 시크로헥산 순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산단별 화학물질 취급량은 여수산단에서 전체 취급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광양산단, 영암산호산단 순이며, 배출량은 영암산호산단이 전체 배출량의 52.2%를 차지하며 여수산단, 광양산단 순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달부터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상세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 등 211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5월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조사한 화학물질 배출량을 물질별, 업종별, 지역별, 사업장별로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tripen)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계기로 배출 저감과 생산성 제고 등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역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료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폐현수막이 밧줄로 재탄생

사회적 기업 ‘현장사람들’ 내일 공장 가동식

건설 일용노동자들로 구성된 광주의 한 사회적 기업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밧줄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 ‘현장사람들’은 오는 26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밧줄생산 공장에서 생산 기계 가동식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현수막을 거둬들여 울타리나 양식장, 건설현장 등에 쓰이는 밧줄로 재생산한다.

광주 지역 건설노동자 14명으로 구성된 현장사람들은 광주시와 아름다운가게, 광주 옥외광고협회와 협정을 통해 현수막을 수거하고 밧줄 판매를 통해 나온 수익금은 공동 분배할 예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폐현수막은 광주에서만 한해 200t, 전남에서는 한해 1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업은 자원 재활용은 물론 폐현수막 매립·소각 시 발생하는 비용과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현장사람들은 설명했다.

또 폐현수막 밧줄 생산을 비롯해 DIY(Do It Yourself) 공방,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석면해체, 어린이 놀이시설 임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사람들 류광수 대표는 “자원재활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따뜻한 봄 즐거운 영화와 함께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1관 마이 윈 앤 온리 (12세)

2관 소스코드 (12세) / 첩보왕 (15세)

3관 삼국지:명장 관우 (15세)

4관 씨니 (15세)

5관 분노의질주 (15세) / 옥보단3D (18세)

6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7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8관 토르:천둥의신 (12세) / 천녀유혼 (12세)

9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10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MEGABOX**

M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최고급관**

2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삼국지:명장 관우 (15세)

5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6관 첩보왕 (15세) / 최초리 (12세)

7관 소스코드 (12세) / 토르 (12세)

8관 씨니 (15세)

9관 소스코드 (12세) / 캐리비안의해적 (12세)

**CINUS**

1관 삼국지:명장 관우 (15세)

2관 소스코드 (12세)

3관 첩보왕 (15세)

4관 씨니 (15세)

5관 천녀유혼 (12세) / 삼국지 (15세)

6관 최초리 (12세)

7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8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9관 캐리비안의해적-낮선조류 (12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영희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